

## 道德的 價値判斷의 測定에 관하여

鄭 遇 湜

(延世大 社會事業學科 助教授)

### I. 研究의 必要性

요즈음 우리 사회가 보는 대학생들의 자세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로 일반시민들의 견해는 대학생들은 사회 현실에 대하여 용감하다, 이들은 높은 향학열에 불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장래는 밝기만 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학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요즈음 대학생들의 정신병리현상의 정도가 과거의 젊은이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견해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빙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현 대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일면의 견해를 표방하고 있음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두 견해들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전자의 경우 용감성이란 주로 대학생들의 현 사회실정에 대한 캠퍼스 소요를 두고 말하는 것 같으며, 높은 향학열이란 수많은 학생들의 도서관 사용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캠퍼스 소요의 원인에 대하여는 필자는 잘 모르겠으나(오랜 동안의 외국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의 사회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도서관 출입과 관련된 높은 향학열에는

의심점이 많다. 요즈음의 대형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분위기는 면학적인 환경만은 아니다. 요즈음 도서관은 어떤 의미에서 대학생활의 사교장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도서관 출입이 강의실 출입보다 더 열성적인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도서관 출입을 위해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개근한 많은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성적에 “C” 학점을 겨우 상회하고 있는 현상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서 말하는 병적 현상의 양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그들의 언동에 있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인내심의 부족, 아동기의 본능적 충동성의 잔여, 부족하고 부적절한 정보에 의해 인간관계와 사회현실을 판단하려는 성급한 성벽 등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방적이거나 또는 편견에 휘몰아 넣어, 결국에는 자기 손실을 가져오는 현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바람 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죄의식의 결여성으로 자책감과 반성감이 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어떠한 원인들의 영향에 의해 발생되었는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상의 발생 원인에는 여러 측면(경제, 정치, 사회, 문화체계)에서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행동의 기

준이 되는 道德的 思考와 判斷의 수준을 측정해 보는 것이 문제 분석을 위한 접근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도덕이론과 실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 1) 도덕적 가치판단을 위한 인식발달과정의 단계적 이론
- 2) 단계적 도덕가치 발달의 측정방법
- 3) 도덕가치 측정을 다루는 설문  
 설문 1  
 설문 2  
 설문 3  
 설문 4  
 설문 5  
 설문 6
- 4) 도덕교육을 위한 示唆

## II. 이론적 배경

여러 세대 동안 도덕물은 사회적 제반관계와 그 발전을 규정하는 데 중심이 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혹자는 사회과학을 도덕과학이라고까지 말한 적도 있다. 20세기 초반의 위대한 理論家들 역시 사회개발(발전)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것은 도덕물이라 하였다. Mc Dougall(1908)이 지적한 바와 같이 社會心理의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그 사회가 개인들을 도덕적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줄 때 해결된다고 하였다. 또한 Freud(1930) 역시 죄의식(the sense of guilt)은 文化의 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도덕물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바뀌어 아동발달에 더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Albert & Kluckhohn, 1959; Jones, 1954). 특별히 1960년대에 양심과 도덕 발달에 대한 사회조사와 이론들이 증가되었었다.

이러한 도덕발달 연구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내적으로 도덕성과, 외적으로 사회환경에의 적응에 대한 개념의 구별이 좀 더 학문적으로 명료하게 된 데에 그 일부의 원인이 있었다고들 한다. Nazi와 Stalinist 제도의 병폐적 사회규범에 맹종을 강요했던 잔인성이 남긴 뼈아픈 고통에

대한 증거가 보여 주듯이 집단에 대한 적응이 도덕적 원숙(원만)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Kohlberg, 1964). 그러므로 내적 측면에서의 사회화(socialization)에 대한 관심이 아동들의 도덕물에 대한 연구에 뚜렷한 초점을 이루었다. 도덕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일련의 문화적 규칙들이 그 사회의 개인들에 의하여 內在化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도덕의 발달은 기본적인 문화규칙들의 내재화(internalization)가 증가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지금까지 여러 도덕이론가들이 주장해온 내재화는 행동, 정서(감동) 그리고 판단적(judgemental)인 측면에서의 도덕이었다.

· 행동기준의 내재성 : 유혹에 대한 저항태도(예, 규칙을 어기라는 유혹에 대한 어린아이의 저항—시험중 킨닝 등)

· 정서수준의 내재성 : 反省, 自責, 문화규범을 위반한 후 느끼는 자책감, 반성 즉 죄의식

· 판단기준의 내재성 : 설정된 기준에 대한 판단 능력 또는 자기나 타인에게 적용되는 기준 유지의 정당화 능력

最近의 도덕이론연구는 1932년 Piaget의 초기 인식이론에 영향을 받았던 판단적 측면에서의 도덕발달(도덕적 판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이란 도덕발달의 단계, 사회적인 체험과 역할수행에 관련되는 결심구조, 그리고 도덕적 행위에 대한 그들의 (인간)관계를 일컫는다.

도덕적 판단의 단계(moral judgement stages)를 토의하기 이전에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은, 도덕적 판단과 다른 형태의 판단과의 차이점에 관해서이다. 도덕적 판단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옳고 좋다는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의 판단을 말하며 다른 형태의 판단인 진리나 미의 평가, 자연히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기술 또는 분석, 실질적인 계산에 의한 결과의 유추 등의 심미적, 기술적, 현명한 측면에서 보는 옳고 좋은 것은 도덕적 가치판단이 아니다. 도덕적 가치판단이란 보편성, 포괄성, 일관성, 객관성, 비개인적 또는 이상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단계적 도덕발달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인간의 개성발달

을 보는 데 있다. Kohlberg 에 의하면 개인의 도덕적 발달은 단계적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발달과정은 지적 발달과 상관관계가 있다. 예컨대 지적 발달은 도덕적 사고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환언하면 도덕적 사고의 발달은 지능발달에 의존하나, 지능발달은 도덕적 사고 발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Kohlberg, 1969). 도덕적 사고의 수준은 뚜렷이 일반적인 지능의 수준으로부터 분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숙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높은 단계의 지적 발달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Kohlberg 의 도덕적 발달단계 이론의 연령분 또는 각 개인마다 단계발달에의 진전에는 그 속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단계(4~7), 2단계(7~10), 3단계(10~14), 4단계(14~17), 5단계(17~21), 그리고 6단계(21~25)의 연령분포를 이룬다고 한다.

#### <도덕적 사고의 6단계>

**1段階**: 처벌과 육체적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규칙과 권위에 맹종하는 사고의 수준

- ㉠ 옳다고 하는 것; 처벌 때문에,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피하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순종하며 타인과 재산에 손상을 피하는 것
- ㉡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 처벌을 피해야되고 높은 권위에 대한 순종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 ㉢ 사회적 관점; 이기주의적 관점, 타인의 이해관계를 무시, 상호간의 견해를 고려치 않음. 행동은 주로 심리적 동기와 이해에서보다는 육체적 필요에 의해 동기화된다.

**2段階**: 보상과 호의적인 기대가 주가 되는 사고의 수준, 즉 개인주의와 도구주의적 목적과 교환의 기준이 된다.

- ㉠ 옳다고 하는 것; 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따를 때 규칙을 지키는 태도, ② 자기의 이해와 필요를 충족시킬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하는 것, ③ 공평 즉 동등한 교환, 賈買 그리고 상호합의적 태도.
- ㉡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 다른 사람도 자기들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

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인식해야겠다는 것.

- ㉢ 사회적 관점; 철저한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과 견해를 타인의 것과 구별한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권리란 개인주의적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개인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떤 도구적 또는 수단적 교환조건으로 해결한다. 소위, 공평히 각 개인의 이익을 다룬다고 하나 이는 물질적 수단을 통하여 쌍방간에 손해 없이 타협하여 이익을 분담하자는 사고이다.

**3段階**: 타인으로부터의 거절과 싫다고 함을 피하기 위해 동의하는 사고의 수준

- ㉠ 옳다고 하는 것; 좋은 역할을 수행하여 타인의 감정을 거슬리지 않게 하며 충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 즉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 좋다고 함은 중요하며 좋은 동기를 갖는 의미가 되며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 역시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신뢰, 충성, 존경 그리고 만족을 유지하는 것.
- ㉡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 ① 자기 자신과 타인의 눈에 좋다고 함이 필요하므로, ② 타인을 염려하며, ③ 남의 입장에 서서 볼 때 자기의 행동이 옳아야 함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황금률 때문에.

- ㉢ 사회적 관점; 상호관계의 입장에서 이익에 대한 감정, 합의, 그리고 기대를 서로 나누며 실제적인 황금률(Golden Rule,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12가지 법칙)에 의해 상호견해를 교환하며 일반화된 제도의 견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4段階**: 사회 질서의 유지 즉 법 저촉으로 인한 罪를 피하려는 사고의 수준

- ㉠ 옳다고 하는 것; 사회권내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의 복리에도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 자기가 동의했던 의무를 수행하며 주어진 사회적 의무가 그들의 이익과 극도로 갈등을 자아내지 않는 한법의 준수는 필요한 것이며 사회와 집단과 여러 제도에 대한 공헌을 하여야 함을

인정하는 것.

㉠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 제도의 운영을 유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호존중과 자기의 임무 수행에 대한 의무감.

㉡ 사회적 관점; 개인 상호간의 협의 또는 동기와 사회적 견해에서의 것과 분리된다. 역할과 규칙의 정의를 사회적 견해로 내리며 개인 상호관계를 제도적 입장에서 생각.

5段階: 사회 공동체의 부리를 위해 공정한 기준에서 판단하는 사고의 수준. 사회계약 또는 사회적 유익성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적 사고 단계.

㉢ 옳다고 하는 것; 집단의 실제적인 규칙과 법에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권리, 가치, 법적 계약은 지지하며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다른 가치와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과 대부분의 이러한 다른 점들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런 상대적 규칙들은 통상적으로 공평성이라는 기준 하에서 그리고 사회계약이라는 이유로 지지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상대적이 아닌 가치와 권리들인 “생명”과 “자유”와 같은 개념들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리고 절대다수의 의견과 관계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

㉣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5단계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준수하는 사회계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느끼기 때문.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가정, 친구, 신뢰 그리고 임무는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委託 또는 계약한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타인의 권리도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이들은 법률과 의무는 절대다수의 절대선을 위한 社會的 有益을 근거로 하는 合理的 계산에 의하여 기초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사회적 관점; 사회계약 이전에 개인의 가치와 권리의 중대함을 합리적 견해, 공식적인 합의, 계약, 객관적인 공평성과 법적 절차 등의 통합적 견해이다. 법적 견해와 도덕적 견해의 갈등을 인식하고 이의 통합의 어려움을 인식한다.

6段階: 자책감을 피하기 위해 보편적인 윤리적 원칙에 순응하는 사고의 수준

㉠ 옳다고 하는 것; 자기가 선택한 윤리원칙에 의해 따르며 특정한 범구나 사회적 합의들이 타당시되는 바는 이들이 앞서 언급한 윤리적인 원칙들에 근거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법규들이 이러한 윤리적 원칙들에 위배되었을 때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원칙에 의해 행동한다. 그 원칙들은 인간의 동등성, 존엄성 등과 같은 보편적인 정의(正義)에 대한 원칙들이다.

㉡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단계의 사람은 원칙의 타당성을 인식하고 이에 준해서 행동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 사회적 견해; 여러 사회적 調整·協定이 도덕적 견해에서 유효되어야 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존엄성이 인식되어지고, 수단적 이기보다는 목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의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각 단계가 제시하는 기준들은 도덕적 사고의 의향과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개성(인격)의 종류를 나타내는 바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하겠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2단계의 도덕적 사고를 한다고 할 때 이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고와 행위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2단계의 도덕적 수준에서 옳고 공평함을 인식한다는 뜻이 되겠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2단계의 도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도구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공평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수준의 사고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에 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살피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좋은 인간관계란 단지 교환조건에 기준을 두는 경우를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측정 방법〉

Kohlberg가 정의한 도덕적 발달 단계 이론은 쥘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덕이론이다. 대부분의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Kohlberg의 질문에 의하여 그들의 도덕적 사고의 수준이 측정되어졌음을 알고 있다.

Kohlberg가 사용하는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측정방법은 6개의 이야기(story)를 중심으로 생명, 재산, 진리, 권위, 법계약, 인간의 존엄성, 종교, 양심, 처벌 등의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6개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설문이 측정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수준은 주로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제시하는 도덕적 사고 형태를 서술적으로 기록하여 내용 분석함으로써 도덕적 단계를 규정하여 왔었다.

이와 같은 직접면담을 통한 측정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로, Kohlberg의 설문 사용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Harvard大學의 Kohlberg 도덕교육 Center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만 되었기에 이 설문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의욕에 제한성을 주었다. 둘째로, Kohlberg의 설문은 상대방의 시간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셋째로, 면담이 끝난 다음에는 수집된 자료가 반드시 Kohlberg의 교육 Center에 보내져, 그들의 내용분석에만 의존해야 되었다. 이와 같은 제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Bode와 Page가 Kohlberg의 원 설문을 토대로 하여 새로이 개발한 전산화된 설문이 1978년에 등장하였다.

Bode와 Page(1978)에 의하면 그들이 개발한 도덕적 사고와 판단을 측정하는 전산화식 설문내용이 Kohlberg의 면담식 설문내용과 그 정확도

(reliability)와 신빙도(validity)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없다고 발표하였다(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의 사회조사에서 인정하는 정확도의 정도가 Alpha 0.50 이상이면 설문내용에 커다란 문제성이 있지 않다고 본다(Rummel, 1959)).

Bode와 Page가 개발한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측정을 위한 설문은 Kohlberg의 6개의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Kohlberg와 다른 점은 각 질문에 대한 답들을 각 단계별로 미리 작성하여 놓음으로써, 응답자의 도덕적 사고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또 하나의 다른 점은 Kohlberg의 6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단계 6은 설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계 6의 설문에서의 탈락은 많은 도덕 이론가들의 비평과, 이 수준의 비현실성 때문이었고 실제로 Kohlberg 자신이 1978년 어느 세미나에서 「나의 단계 6 이론은 자유주의 가치관에 대한 과학적 합법성을 지지하려는 이론적 노력이었으나, 이의 비현실성에 관한 인식의 증가로, 이 단계 6을 나의 이론에서 제거하겠다」고 공식 선포하였다. (H. Muson, 1979)

Kohlberg의 설문을 토대로 하여 Bode와 Page가 개정한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측정방법은 주로 산술평균치를 이용하였다. 설문에 답하는 예상 답들에 포함되는 무의미(nonsense)와 추상성(abstract)에서 산출된 점수는 산술평균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표-1〉 설문의 내적 일관성  
(Alpha Coefficient of Internal Consistency)

measure	Item	n	Alpha
Moral Judgement Interview (Kohlberg)	6	92	0.89
Ethical Reasoning Inventory (Bode & Page)	26	92	0.75

※ Bode & Pag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8.

※ 紙面關係로 Bode와 Page 모델의 설문내용을 掲載하지 못하여 罪悚합니다. 參考하실 분은 筆者에게 직접 問議하시기 바랍니다.